

서시복 트렌드 2027

삶의 항해

돌봄포커스

나이테레코드

디지털 포용

두레마을

베리어플러스

모두의 마당

서시복 트렌드 2027

서시복 트렌드 2027

발 행 일 2026년 11월
발 행 인 서혜미
발 행 처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편 집 인 기획전략팀 박혜민
홈페이지 https://bokji.or.kr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 있으므로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발간사

삶의 항해를 넓히고, 경계를 넘어 연대의 힘으로 그리는 장애인 복지
존경하는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지역주민과 후원자, 자원봉사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당당한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이 제한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복지와 장애포용적 지역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왔던 단단한 뿌리를 지키면서 다가올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2027 서시복 트랜드는 복지관을 걸어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자,
핵심전략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고 있는 로드맵입니다.

첫째, 당사자 중심의 '삶의 항해'와 '통합돌봄'을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겠습니다.
2026년 본격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다가오는 자립지원법·개인예산제의 흐름 속에서, 복지관은 선장이 되어 삶을 대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신의 키를 직접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항해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주거·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흩어진 서비스가 아닌 '하나의 삶'을 온전히 지지하는 지원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둘째, 나이 듦과 디지털 전환 속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고령 시각장애인의 삶이 단순한 상실이나 고립에 머물지 않도록, 오랜 경험과 삶의 여정의 기록 위에 새로운 일상을 쌓아가는 '나이테 레코드'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시각장애인이 기술의 수혜자를 넘어 디지털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의 가치를 일상 속에 깊이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이웃과 일상이 만나는 '모두의 마당'과 '두레마을'을 넓혀가겠습니다.
권익옹호와 배리어프리는 이제 특정 시설의 변화를 넘어, 누구나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참여하는 일상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관 안에서 시작된 관계가 동네의 카페, 산책로, 주민센터로 이어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낯선 존재가 아닌 '다정한 이웃'으로 만나는 '모두의 마당'과 '두레마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서비스를 연결하는 돌봄에서, 삶을 연결하는 돌봄으로."
"권리를 지키는 복지관에서, 함께 바꾸는 지역사회로."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27년에도 시각장애인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곁을 지키며,
서로 다른 삶의 경계를 낮추고 함께 누리는 일상을 넓혀가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관심과 애정을 담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에 복지관이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서 혜 미 관장

목차

발간사 03

2027년 서시복 트렌드 키워드 요약 05

2027년 서시복 트렌드

1. 삶의 항해 06
2. 돌봄포커스 08
3. 나이테레코드 10
4. 디지털 포용 12
5. 두레마을 14
6. 베리어플러스 17
7. 모두의 마당 20

2027년
서시복 트렌드
키워드 요약표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한 항해, 스스로 항로를 만들어 가는 힘 삶의 항해
- 기초활동지원사업, 묵자익히기

서비스 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돌봄의 초점을 전환하다 돌봄포커스
- 시민옹호인, 마을이음이

고령장애인이 살아온 삶의 기록 위에 새로운 일상을 쌓는 시간 나이테 레코드
-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디지털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환경을 함께 바꾸다 디지털 포용
-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 기초활동지원사업

권리를 지키는 복지관에서, 함께 바꾸는 지역사회로 두레마을
- 시민옹호인

서로 다른 삶의 경계를 낮추고 함께하는 일상을 넓히다 베리어플러스
- 지역사회 환경조성사업, 장애인식개선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이웃기웃'

사람을 연결하는 복지관, 서로의 일상이 만나는 지역사회 모두의 마당
- 주민조직화사업 '우리는 든든한 이웃', '마을이음이', '스몰스파크'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한 항해, 스스로 항로를 만들어 가는 힘

삶의 항해



서비스 대상에서 삶의 항해사로: 변화하는 복지 패러다임

장애인복지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의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선택과 실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무엇을 배우고, 어떤 일을 하며, 어디에서 살아가고,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지. 삶의 중요한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의 생각과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과 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27년 본격 시행을 앞둔 '장애인 자립지원법'과 '개인예산제'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선택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구조적 전환을 보여준다. 송파구 역시 동료지원, 문화 예술, 키오스크 안내, 협력기관 파견 등 장애인일자리 영역을 다각화하며 일상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넓히고 있다.

하지만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는 것만으로 주체적인 삶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에서 나아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보고, 여러 가능성을 비교하며, 선택한 것을 실제 삶에서 실현해내는 힘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복지는 당사자를 대신해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경험과 역량을 쌓고, 관계와 자원을 활용하여 삶의 방향을 조정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삶의 방향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항해사

항해에는 목적지만큼이나 배의 키를 직접 잡고 방향을 조정하는 힘이 필요하다. 삶도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목적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을 찾아보고 때로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항로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은 정보 접근, 이동, 의사소통 등의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이 선택한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다른 장벽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는 복지는 단순히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며, 선택한 것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원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내가 속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능력, 타인과 관계를 맺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상호작용의 힘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과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경험하더라도 그 경험을 배움으로 삼아 자신의 방향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배우고, 경험하고, 선택하며 삶의 항로를 넓히다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기초활동지원사업은 보행, 점자, 모바일 활용, 일상생활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해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기보다 당사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는 배움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융·행정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묵자 익히기' 교육은 서명이나 문서 작성 등 일상에서 필요한 문자 활용 능력을 높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주체적인 삶의 기반이 된다.

앞으로는 이러한 역량을 보다 넓은 삶의 경험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신의 욕구와 강점을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자기 이해와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환경을 포함해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고 비교 ·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과 활용 역량을 높여야 한다.

셋째, 복지관에서 익힌 역량이 실제 지역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여가·고용·주민활동 등 다양한 경험의 장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패나 시행착오 역시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복지관은 선장이 아니라 항해의 동반자

주체적인 삶을 지원한다고 해서 복지관이 모든 과정을 당사자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새로운 선택을 위해 정보가 필요하고, 처음 경험하는 일을 시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자원을 찾아주는 조력자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복지관이 당사자의 삶을 대신 이끌어가는 선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신의 키를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관은 때로는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안내자가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조력자가 되며, 어려운 순간에는 함께 방향을 살펴보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방향을 선택하고 항해하는 사람은 당사자 자신이어야 한다.

삶의 항로는 사람마다 다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찾고, 스스로 선택하며, 필요할 때 항로를 다시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직접 만들어가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복지관은 당사자의 배를 대신 운항하는 선장이 아니라, 스스로 항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함께 준비하고,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는 여정에 곁을 지키는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서비스 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돌봄의 초점을 전환하다

돌봄 포커스

초고령사회가 본격화되고 장애인구의 고령화와 독거·고립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차지하는 의미도 달라지고 있다. 이제 돌봄은 단순히 일상생활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곳에서 원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되어야 한다.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가 확대되고, 장애인의 자립과 개인의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2027년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이 주목하는 것은 돌봄의 양이 아니라 돌봄의 방향이다.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는가보다,그 지원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돌봄 포커스(Care Focus)'이다.

서비스에서 삶으로, 돌봄의 초점을 바꾸다.

그동안의 돌봄은 활동지원, 식사지원, 가사지원 등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공급자와 제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당사자가 살아온 삶의 맥락과 가치,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까지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했다.

사람의 삶은 서비스 항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싶은지,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싶은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따라서 돌봄의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서
"이 사람이 원하는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로.
돌봄 포커스는 바로 이 질문의 전환을 의미한다.

필요한 것을 채우는 돌봄에서, 삶을 살피는 돌봄으로

돌봄 포커스는 당사자를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는 장애와 노화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오랜 삶에서 쌓아온 경험과 능력, 좋아하는 일, 익숙한 관계와 생활방식이 있다. 따라서 돌봄을 계획할 때에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힘과 관계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랫동안 혼자 생활해 온 사람이 있다면 단순히 식사나 가사를 지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유지하고 싶은 생활방식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고령 시각장애인이라면 의료서비스를 연결하는 것과 함께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이웃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돌봄은 당사자의 삶을 대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원하는 일상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흩어진 서비스를 잇고, 하나의 삶으로 연결하다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은 돌봄 포커스의 관점에서 복지관의 역할도 함께 변화시키고자 한다.
개별 서비스의 제공과 연계에 머무르지 않고, 당사자의 건강·주거·일상생활·활동·관계·소득·권리를 함께 살피며 개인별 지원계획을 '서비스 계획'에서 '삶의 계획'으로 확장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 건강장수센터, 돌봄SOS, 의료기관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당사자의 삶에 맞게 연결한다.
동시에 제도화된 서비스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관계와 정서적 돌봄도 함께 살핀다. 동료옹호가, 시민옹호인, 마을이음이와 같은 지역사회 관계망을 통해 일상에서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활동하고, 필요한 순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다.
결국 복지관의 역할은 모든 것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의 삶을 중심에 두고, 필요한 사람과 서비스와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는 것이다.





살던 곳에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비스를 많이 연결하는 데 있지 않다. 한 사람의 삶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되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병원에 가야 할 때는 의료와 연결되고,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는 지역의 건강자원과 연결되며, 일상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절한 돌봄서비스와 연결되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함께할 이웃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어져야 한다.

돌봄 포커스가 바라보는 통합돌봄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서비스를 연결하는 돌봄에서,
삶을 연결하는 돌봄으로.
필요를 채우는 돌봄에서,
원하는 일상을 지지하는 돌봄으로"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27년, 당사자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삶의 결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고령장애인이 살아온 삶의 기록 위에 새로운 일상을 쌓아가는 시간

나이테 레코드

장애인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는 오늘날 복지 현장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변화 중 하나다. 전체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비율이 이미 절반을 넘어섰으며, 장애인복지 현장 역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복합화라는 과제에 마주해 있다. 과거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노화로 인한 신체적·감각적 기능의 상실을 메우거나 단순히 고립을 방지하는 '수동적 케어'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노화(쇠퇴)'가 아닌 '삶의 변화'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선은 정책 환경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2026년 본격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뿐만 아니라 고령장애인을 주요 통합돌봄 대상에 포함하며, 보건·의료·복지·주거를 아우르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 송파구 역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건강장수센터' 운영, '돌봄SOS' 지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및 'AI·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통합돌봄과 정책적 안전망이 확충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고령장애인의 나이 듦을 단지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로 다루지 않는 것이다. 나이가 들며 신체 조건이나 생활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다. 복지는 달라진 조건 속에서도 당사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을 인정받고, 그 위에서 새로운 일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안하는 키워드가 바로 '나이테 레코드'다. 나이테 레코드란 당사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역사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변화하는 삶의 조건에 맞추어 새로운 경험과 관계, 역할과 일상을 계속 기록하고 쌓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나무가 해마다 새로운 결을 더해가며 단단해지듯, 고령장애인의 삶 역시 과거의 기록 위에 새로운 일상을 한 겹 더해가는 연속적인 여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이테 레코드는 이러한 고령장애인의 삶을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다.

첫째, 살아온 삶을 존중한다. 고령장애인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기 이전에 오랜 시간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지나온 경험과 관계, 능력과 강점은 현재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지원은 이러한 삶의 궤적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둘째, 유지에서 새로운 일상으로 확장한다. 고령장애인의 삶을 과거의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여가활동을 찾고,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역할을 만들어가는 등 지금의 삶에 새로운 경험을 더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셋째, 변화하는 삶에 맞춰 지원도 함께 조정한다. 당사자의 건강과 관계, 생활환경은 계속 변화한다. 따라서 지원 역시 한 번 정해진 서비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욕구와 상황을 함께 살피면서 필요한 자원과 활동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나이테 레코드는 나이 듦을 단순한 상실이나 쇠퇴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삶의 조건에 맞춰 새로운 일상의 층을 단단히 더해가는 적극적인 삶의 재구성 과정이다.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은 이러한 관점에서 고령 시각장애인의 건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은 '건강 증진'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신체·정서·사회적 영역을 함께 살피며,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당사자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2027년에는 기존의 여가·문화 중심 지원에서 한 단계 나아가, 고령 시각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건강 욕구를 반영한 건강·신체 중심의 특화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의 보건·의료자원과 협력하여 만성질환과 건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령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활동들을 자조모임 형태로 확장하여, 프로그램 참여에 머무르지 않고 당사자가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령 시각장애인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함께 살피면서, 변화하는 삶의 조건에 맞춰 스스로 일상을 만들어가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강, 관계, 여가가 각각 분리된 서비스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고령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지지하는 기반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나이테가 지나온 시간을 기록하듯, 한 사람의 삶에도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 남는다. 그리고 새로운 일상은 그 기록 위에 다시 쌓인다. 고령장애인의 삶을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않고, 변화하는 삶의 조건에 맞춰 새로운 경험과 관계,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나이테 레코드가 말하는 고령장애인 지원이다.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은 고령 시각장애인이 지나온 삶의 깊은 궤적 위에 존엄하고 활기찬 새로운 나이테를 하나씩 더해갈 수 있도록, 그 일상의 기록과 여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디지털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환경을 함께 바꾸다

디지털 포용



문턱을 넘어, 모두나 기술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다

인공지능(AI), 키오스크, 모바일 플랫폼이 일상의 풍경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음식을 주문하고, 버스를 확인하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일까지 이제는 디지털 환경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일상의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속도로 그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이 일상이 될수록 새로운 문턱도 생겨난다

시각장애인에게 디지털 환경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인 동시에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 스크린리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바일 앱, 음성 안내가 제공되지 않는 키오스크,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된 웹사이트, 접근하기 어려운 인증 절차처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곧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송파구 역시 65세 이상 고령 1인 세대가 최근 3년간 17.6% 급증하고 등록장애인이 2만 명(20,115명)에 달하며, 마천·거여 지역 등 일부 생활권에 장애인 인구 비율이 최대 7.12%까지 집중되는 지역적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6기 송파구 지역사회보장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자립 및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필요율과 실제 이용률 간 격차가 무려 42.9%p로 높게 나타나, 정보 부재와 접근성 부족이 일상 자립과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실질적인 장벽임을 보여준다.

'마중'을 넘어, 디지털 주권의 안착으로

2026년 서시복트렌드에서 이야기한 '디지털 마중'이 디지털 환경의 문턱을 낮추고 당사자가 기술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시작이었다면, 2027년의 '디지털 포용'은 그다음 단계에 주목한다.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의 문제를 발견하고 더 나은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디지털 포용은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생성형 AI와 보조공학기술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활용하고,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스스로 탐색하며,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편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어떤 기술이 누구에게는 편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장벽이 되는지 살펴보고, 실제 이용자의 경험을 서비스와 환경의 개선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포용의 핵심은 모두에게 같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술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



배우고, 활용하고, 함께 바꾸는 디지털 일상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이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일상을 스스로 관리하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사업은 점자와 데이지(DAISY) 자료 제작을 비롯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접근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활동지원사업은 스마트폰 음성 안내 기능과 한소네·스크린리더 등 보조기기를 활용해 금융 교통, 행정 등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디지털 활용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고령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활동은 단순한 기능 교육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배우는 관계 기반의 학습으로 확장될 수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활용을 익힌 당사자가 다른 이용자의 디지털 적응을 돕고, 일상에서 경험한 불편과 개선점을 함께 찾아보는 디지털 동료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실제로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공공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면서 경험하는 불편을 직접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이용자의 경험이 디지털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참여 구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누군가 대신 접근성을 점검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사용해보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지역사회의 디지털 환경을 함께 바꾸어가는 것이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이용자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디지털 전환이 빨라질수록 기술은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디지털 포용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경험을 기술과 서비스의 변화로 연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복지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디지털 활용법을 알려주는 교육기관을 넘어, 당사자가 기술을 경험하고 자신의 필요를 발견하며, 그 경험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참여의 거점이 되는 것이다.

모두가 기술의 주체가 되는 일상으로

디지털은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드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디지털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만이 아니다.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이 디지털 기술의 수혜자나 단순한 이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목소리를 바탕으로 더 나은 디지털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디지털 포용은 기술의 문턱을 낮추는 것에서 시작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디지털을 배우는 사람에서,
디지털을 활용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함께 만드는 사람으로."

권리를 지키는 복지관에서, 함께 바꾸는 지역사회로

두레마을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 현장에서도 '권익옹호'의 역할과 방식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권익옹호는 차별이나 부당한 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대신해 복지관이나 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전문적·대리적 지원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장애인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환경과 관계까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2027년의 장애인복지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일상 속에서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마을 중심의 권익옹호'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한다.

개별적 대응에서 지역사회 일상의 권리로

최근 정책 환경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착와 주체적인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2027년 전면 시행되는 자립지원법과 개인예산제,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는 장애인이 시설이나 일방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살던 동네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권리를 강조한다.

송파구 역시 27개 동을 중심으로 '동 행복울타리'와 주민 밀착형 복지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차별 없이 복지 자원과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가 동네 상점, 식당, 공공시설,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마주하는 물리적·제도적·인식적 장벽은 복지관의 지원만으로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 개별적인 어려움에 전문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사자가 살아가는 지역의 환경과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 역시 필요하다.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드는 '두레마을'

'두레'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했던 공동체의 방식이다. 이를 오늘날의 권익옹호에 적용한다면, '두레마을'은 복지관이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주민과 복지관,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방향이 담겨 있다. 첫째, 당사자의 경험과 목소리를변화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당사자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당함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신의 경험이 지역사회 변화의 중요한 근거가 되도록 한다. 둘째,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는 함께 힘을 보태는 것이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도 그 사람의 삶과 의사를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경우 복지관과 이웃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주체성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과 자원을 연결하고 함께 힘을 모으면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발견하고 → 듣고 → 함께 대응하고 → 변화시키고 → 다시 일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작은 불편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과 지역기관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으며, 그 결과가 지역의 환경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변화는 또 다른 사람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고, 지역사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기반이 된다.

일상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권익옹호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은 '두레마을'의 관점을 바탕으로, 당사자와 주민이 일상에서 만나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관계를 권익옹호의 기반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민옹호인 사업이다. 시민옹호인은 장애인을 일방적으로 돕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여가를 즐기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생활 속 이웃이다. 당사자와 주민이 1:1로 만나 문화·여가활동과 지역사회 활동을 함께하고, 일상적인 관계를 쌓아가면서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위기나 권리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할 수 있는 가까운 지역사회 관계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권익옹호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평소 서로를 알고 지내고, 서로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며, 필요한 순간 함께 목소리를 내는 관계가 만들어질 때 권익옹호는 일상의 문화가 된다.

앞으로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은 이러한 관계 중심의 권익옹호를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변화로 연결해 나가고자 한다. 당사자와 주민이 동네를 함께 살펴보며 발견한 작은 장벽을 지역의 주민센터와 유관기관에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는 현장 밀착형 권익옹호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거창한 제도 변화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메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공간과 서비스를 조금씩 바꾸는 것처럼 당사자의 일상에서 출발한 작은 변화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변화가 하나씩 쌓이면 지역사회의 모습도 달라진다. 장애인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자리하게 된다.



권익옹호가 일상이 되는 마을

'두레마을'은 새로운 조직이나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권리를 살피고, 필요한 순간 함께 힘을 보태는 지역사회의 방식이다. 복지관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며, 주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다. 당사자는 자신의 경험과 필요를 이야기하고, 주민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기관은 생활 속 변화를 함께 만들어간다.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은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기관에 머무르기보다, 당사자와 주민이 만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지역사회의 거점이 되고자 한다.

" 권리를 지키는 일에서, 함께 바꾸는 일상으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마을의 변화가 되고, 마을의 변화가 모두의 권리가 되는 것. "

그것이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가는 '두레마을'이다.

서로 다른 삶의 경계를 낮추고 함께하는 일상을 넓히다

베리어 플러스(BARRIER+)

장애인의 권리와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되었다. 턱을 낮추고,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보도에 점자블록을 마련하는 일처럼 물리적 환경의 장벽을 낮추는 노력은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어왔다.

하지만 장벽을 낮추는 것만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갈 수 있음'과 '함께할 수 있음'은 다르다.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시각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모든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식당에 들어갈 수 있더라도 메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스스로 메뉴를 선택하기 어렵고, 문화시설에 입장할 수 있더라도 필요한 안내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면 온전히 그 공간을 이용하기 어렵다. 시설의 문턱이 낮아졌더라도 정보와 의사소통의 문턱이 그대로라면 일상에서의 참여에는 여전히 제약이 남는다

이처럼 '갈 수 있음'과 '함께할 수 있음'은 다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특정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넘어, 그곳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다. 배리어프리의 의미도 이제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문화와 여가를 즐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상의 모든 과정에서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시설의 문턱에서 일상의 문턱으로

우리 주변의 장벽은 건물이나 도로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정보의 장벽, 문화·여가와 생활서비스 이용에서 경험하는 생활의 장벽, 장애를 낯설거나 불편한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의 장벽도 일상의 참여를 가로막는다. 따라서 앞으로의 배리어프리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고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담은 것이 '베리어 플러스(BARRIER⁺)'이다.
베리어 플러스는 장벽을 없애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접근 가능한 환경을 기반으로 참여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장벽을 낮추는 사람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

베리어 플러스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변화는 장벽을 낮추는 주체의 확장이다. 기존의 배리어프리가 장애인을 위한 환경을 전문가나 행정기관이 개선하는 방식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주민과 기관이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진다.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도 이러한 변화를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고 있다.

우선 지역사회 환경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내 의료기관, 보건소, 미용·자기관리 기관, 사진 전문기업 등 다양한 민간·공공 자원을 연결하여 시각장애인이 일상 인프라를 차별 없이 누리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식개선사업(장애 공감 프로젝트)은 일방적 시청각 교육을 탈피하여,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강사로서 보조공학기기를 소개하고 공예·체험 활동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아동과 지역 주민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장애인을 일방적인 '도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 곁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나아가 주민조직화사업인 '이웃기웃(마을기획단)'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체적 참여 구조를 만들어간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 주민이 한 팀이 되어 송파구 내 공공시설과 일상 생활 공간을 직접 탐방하고 이용 과정에서의 접근성을 점검한다. 물리적·환경적 불편 요소와 긍정 사례를 시각장애인의 관점에서 세심히 조사·기록하며, 이를 자료집이나 활동 노트 등 기록물로 정리하여 지역사회에 공유함으로써 장애 친화적인 마을 환경 조성을 당사자와 주민이 함께 주도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인은 환경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의 환경을 함께 살펴보고 변화시키는 주체가 된다. 주민 역시 장애인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지역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이웃으로 참여하게 된다.



경계를 허물고 함께 누리는 일상으로

배리어프리가 장벽을 허무는 출발점이었다면, 배리어플러스는 그 너머에서 펼쳐지는 '함께하는 일상'을 바라보는 완성점이다. 장벽이 낮아진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일상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베리어 플러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환경 자체를 조금씩 바꾸어가는 과정이다. 서로 다른 삶의 경계를 낮추고 함께하는 일상을 넓혀갈 때,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은 사라지고 모두가 당당한 이웃으로 서게 된다.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27년에도 장애인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일상을 넓혀가고자 한다.

서로 다른 삶의 경계를 낮추고, 누구나 자신의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그것이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가는 '베리어 플러스'이다.

사람을 연결하는 복지관, 서로의 일상이 만나는 지역사회

모두의 마당

복지관은 오랫동안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된 이웃과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립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금까지의 일회성 사업이나 단편적인 '연계' 방식만으로는 주민 간의 끈끈한 공동체와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연계'만으로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동안 복지 현장에서는 서비스나 자원을 이어주는 행위 자체를 곧 '관계의 형성'으로 여겨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연결한다고 해서 관계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일방적인 지원이나 단발성 자원 매칭은 지원이 끝남과 동시에 관계마저 끊어지기 쉽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고, 함께 무언가를 해보는 경험이 반복될 때 서로에 대한 낯섦은 조금씩 줄어든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구분도 자연스럽게 옅어진다. 그렇게 서로의 삶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웃'이라는 관계가 만들어진다. 결국 지역사회의 연대는 무엇을 연결했는가보다, 연결된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지관 밖으로 관계의 무대를 넓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2027년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이 주목하는 지역사회 연대의 모습이 바로 '모두의 마당'이다. '마당'은 특별한 시설이나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자연스럽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도 이와 닮아 있다.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기관이 되기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만들고, 필요한 연결을 돕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사회에는 이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동네의 카페와 식당, 주민센터와 공공기관, 문화공간과 생활시설, 그리고 그곳을 오가는 수많은 주민이 있다.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는 사람과 공간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다. 복지관 안에서 시작된 관계가 지역사회로 이어지고,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진 관계가 다시 당사자의 일상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모두의 마당'이 지향하는 관계의 흐름이다.

일상이 만나는 곳에서 관계가 시작된다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은 이러한 방향을 다양한 실천으로 이어가고 있다.
장애당사자 주도 프로젝트 '우리는 든든한 이웃'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나누는 이웃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다. 지역 카페에서 일일 바리스타로 활동하며 주민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서로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교육장이나 프로그램실이 아닌 동네의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만남 자체가 관계를 만드는 경험이 된다.

주민 주도의 상호 돌봄을 지향하는 '마을이음이'는 지역 주민이 이웃 장애인의 안부를 살피고, 산책과 정서적 교류, 일상적인 관심을 이어가는 활동이다. 거창한 지원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살피는 작은 관심이 반복되면,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를 지켜보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스몰스파크'는 취미와 문화, 공예 등 공통의 관심사를 매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모임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당사자가 모임의 대표나 기획자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역량을 펼치고, 함께 활동하는 과정에서 장애 유무를 넘어 자연스럽게 이웃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세 사업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지향하는 방향은 같다. 복지서비스를 매개로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나아가, 일상을 매개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연결을 넘어 지속가능한 연대

'모두의 마당'은 새로운 시설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는 동네 산책로, 차 한 잔을 나누는 카페, 이야기를 나누는 주민센터, 함께 취미를 즐기는 작은 모임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 자체가 관계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작은 만남은 눈에 띄는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알고, 이름을 기억하고, 인사를 건네는 관계가 생긴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관계도 이러한 일상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역사회 연대는 '얼마나 많은 자원을 연계했는가'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얼마나 많은 일상의 만남이 관계로 이어졌는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두의 마당'도 바로 그곳에 있다.

복지관 안에서 밖으로, 서비스에서 일상으로, 연결에서 관계로.

복지관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돕고, 그 만남이 이웃 관계로 이어지며, 다시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힘이 되는 지역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낯선 존재가 아닌 한 사람의 이웃으로 만나는 곳, 그곳이 우리가 만들어 갈 '모두의 마당'이다.

참고자료

주요 참고자료

- 2026년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중장기 전략안
- 2026년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사업계획서
- 2026년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사업평가서
- 2026 서시복 트렌드
- 보건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복지'
- 송파구청 소통구청장실 홈페이지
  - 송파구 민선8기 공약사업 실행계획
  - 송파구 공약사업 총괄현황 및 이행현황
- 제6기 송파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제 37회 송파통계연보

기타 참고 자료

- 2025 장애인백서(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의 삶 패널데이터 이용 안내서(한국장애인개발원)
- 고령장애인 통합돌봄 모형 구축 사업 종사자 워크샵 자료(공동모금회)
- 통합돌봄시대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과제(김미옥 외 2026)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056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19길 27(삼전동)
전화 02-422-8108 팩스 02-416-4093
홈페이지 https://bokji.or.kr